

전북대, 한옥기술 우수성 알린다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 특강·실습·답사 등 교육

한옥 교육의 메카인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옥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대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고위정책과정(한옥)을 유치해 지난달 30일부터 고창캠퍼스에서 한옥 정책과 실습 등 다채로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선발하여 한옥정책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인데 중앙부처와 전국에서 선발된 고위직 공무원 45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1주일 동안 이남호 총장의 특강을 비롯해 인간문화재 최기영 대목장의 특강 등 이론 강의와 한옥체험, 한옥실습, 전주한옥마을 답사 등을 경험하고 있다.

전북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한옥교육 수준과 시설, 장비를 활용해 관련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고위정책과정(한옥과정)을 유치, 3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대가 지난달 30일부터 고창캠퍼스에서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교육기간동안 고창캠퍼스에서 머물면서 숙식하고 지역 마을 부녀회에서 지역 음식재료로 직접 음식을 해주는 등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교육을 유치한 남해경 교수(한옥기술종합센터장)는 "이 교육을 통해 중앙정부에 우리대학과 지역의 우수한 한옥기술을 알리고 지역의 좋은 이미지까지 심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유치해 대학은 물론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 중앙정부에 우리대학과 지역의 우수한 한옥기술을 알리고 지역의 좋은 이미지까지 심어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유치해 대학은 물론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지난 2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2017 산학연엑스포에서 장관상과 아이디어 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대 LINC+사업단 '겉경사'

고영호 단장 교육부장관상 학생들은 아이디어 우수상

전북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단장 고영호·이하 LINC+사업단)이 지난 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산학연엑스포에서 장관상을 받는 등 다채로운 성과를 올렸다고 3일 밝혔다.

LINC+사업단은 이번 행사에서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영호 단장이 유공자 표창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2012년부터 지역 기업과 산학협력 강화와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국내 대학 중 최우수평가를 받은 사업단은 올해 LINC+사업에 또다시 선정되며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을 선도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LINC+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에서도 사업단 학생들은 우수 아이디어 제품을 선보이며 우수상을 받았다.

전국에서 94개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는 화학공학부와 자원에너지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7명으로 구성된 '지화상팀'이 '다기능 결합형 종이컵 접시'를 출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 LINC+사업단의 다학제 융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통해 작품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이 작품은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종이컵과 종이접시를 접합과 펼침을 통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작품은 현재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사업단은 향후 지역 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대량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영호 사업단장은 "이번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우리대학이 산학협력과 학생 성과 등에서 두루 우수한 성적을 올리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 기업과 학생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고도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저장식품 진드기 방제 바이오 신소재 개발

전북대 이회선 교수 연구 사이언티픽 리포트 게재 천연 치료제 개발 기대



또한 식품이나 곡물 취급자에게 기관지염이나 천식, 장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야기해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며 치료제 개발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제들은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작용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천연물질을 이용한 항알러지 기능성 식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천연물질인 물방초에서 바이오 소재를 분리·정제하는데 성공했고 이를 천연 살비제와 저장식품 진드기 변색 기능을 함유하는 살비성 바이오키메라 개발했다.

이회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천연물에서 바이오 소재를 추출해 저장식품 진드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농·식품 및 인간위생 복지의 안정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며 "향후 진드기 방제 및 치료제 개발 등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 이회선 교수(생물환경화학·사진)가 물방초에서 저장식품 진드기를 방제할 수 있는 바이오 신소재를 분리·정제하는데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으며 국내외 특허도 출원한 상태다.

최근 고령화 및 생활습관의 서구화에 따라 저장식품 진드기는 식품, 식품 저장소, 곡물 저장소, 건조 및 곡물 가투 내에 다량 분포하여 식품 부패를 야기한다.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초등10·중등30명 선발

전북도교육청이 초등 10명, 중등 30명 등 총 40명의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를 공개 선발한다.

도교육청은 국공립 초·중·고교와 중등 사립학교 교사 중 교육경력 12년 이상(2018년 3월 1일 기준)인 사람과 보직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를 공개 선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초등교육전문직원은 교감 7명, 교사 3명 대상으로 총 10명을 선발하며 중등교육전문직원은 교감 1명, 교사 전문분야 체육 1명, 상업 1명, 일반분야 27명 대상으로 총 30명을 선발한다. 중등 교육전문직원은 일반분야 선발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며 이번에 유아 교육전문직원은 선발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아 소양평가, 현장평가, 역량평가 등 3차 전형을 거쳐 임용후보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의 교육 강토세

지난 4월 전주 우원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